2024 년 6 월 16 일 "(아바드의 사람들 14) 겸손과 용서"(행 7:51~8:1)

오늘은 스데반 집사가 보여준 그리스도의 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아바드의 사람, 스데반

유대인 회당(리버디노) 사람들은 스데반과 예수님에 대한 논쟁을 벌이다가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성령을 못 받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오히려 완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스데반은 구약의 주요 역사와 사건과 인물들을 열거하며 성전과 율법에 대한 훌륭한 설교를 하고서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시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51-53 절).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격분하여 스데반(55 절)을 돌로 쳤습니다. 이 때, 스데반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59 절)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60 절) 그리고 그는 잠들었습니다.

[2] 그리스도의 성품을 꽃피운 사람

스데반은 끝까지 주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잃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눅 23:46)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저들을 용서해주세요'(눅 23:34)라고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본문 59-60 절과 비교). 이것을 통해 누가는 스데반이 주님의 참 제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 말씀은 세상에 낳으시고 거두어 가시는 일을 책임지시는 아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의존을 표현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잔인한 죽음을 맞으면서도 나의 존재는 악한 자가 아닌 선하신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셨습니다. 죽음 속에도 아버지께서 주관하는 선하신 뜻이 있음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 겸손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신뢰입니다. 스데반 또한 이 고백을 드리며 겸손한 성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해주십시오'

이 말씀은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높은 삶의 수준이 임할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주님과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 용서를 빈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임한 최고 수준의 삶입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용서는 가해자가 잘못을 빌 때 피해자가 주는 선물입니다.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용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가해자가 용서를 빌지도 않는데 스데반은 용서의 간구를 주께 올립니다. 이것은 미리 준비된 용서의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용서를 배워두어야 합니다.

용서를 참으로 배울 수 있는 존재는 '용서받은 나'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피해와 손해를 끼쳤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과 지혜를 동원하여 나라는 최상의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에게서 그것에 걸맞은 모습이 나타나지 못하고 때로는 욕심과 나쁜 습관으로 인하여 참 사랑을 소멸시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배운 세속적이고 편파적인 안목은 결국 부족감과 열등감을 일으키고 마침내 심령이 깨지고 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창조와 구원의 값진 대가를 치르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큰 손해와 피해를 입으신 것입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회개하면 아버지는 준비된 용서를 신속히 베푸십니다. 내가 이 용서를 받고 감복하여 얻은 힘으로 내게 가해한 자를 지체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겸손과 용서의 아바드의 사람으로서 자기 삶을 마감했습니다. 자기 삶을 잘 가꾼 결과입니다.

성도님들 또한 스데반과 같은 성령충만한 주의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스데반 집사가 초지일관 유지했던 성령충만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2. 본문은 스데반이 예수님의 참 제자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측면이 좋아져야 할까요?